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삼양동성당(전교) | 1998년 9월 설립

입당송 |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

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니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니이다. ◎

제2독서 | 에페 3,2.3L.5-6

복음환송 |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이란 '나타남 혹은 나타내어 보여줌'이라는 뜻으로, 주님 공현이란 말은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내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에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공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이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평생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동방의 세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로 당시에는 임금계만 바치는 보물이었습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알아보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유향은 사제들이 제사 때 분향하는 일종의 향료로, 기도의 상징입니다. 제사 때 향을 피워 분향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느님께 올려바친다는 의

미를 지닙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의 일종으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분임을 알아보았다는 위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구경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참된 예배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로 찾아낸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최대의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와 예루살렘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없이 작고 약한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보편성과 개방성이 신비롭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자체이시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행복에 다다르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삼양동성당(선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99-15



삼양동성당(구 미아동선교성당)은 1998년 9월 선교 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삼양동성당(선교)은 1987년 설립된 빈민사목위원회가 교구의 사목 방침인 2천 년대 복음화 계획에 따라 도시 공소였던 곳을 본당으로 승격함으로써 설립되었습니다. 1998년 9월 교구장의 인사 명령에 의해 이곳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소속 신부가 미아동선교 본당(그 후 삼양동 선교 본당으로 명칭 변경) 초대 주임으로 부임했습니다.(강북구 미아 7동 700-52) 선교 본당 지역이 재개발됨에 따라 2008년 7월 현 삼양동 839-252로 이전해 그해 9월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김하늘 세실리아 | 배우

감사의 마음과 눈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한 아기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가 될 때도, 그 이후 좋은 작품을 만나고 수많은 이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인연은 항상 하느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 때도 역시 하느님 뜻이 있으려니 믿고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한 생명을 잉태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9개월의 시간, 그런데 아기를 낳기 마지막 한 달은 저에게 정말 끔찍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산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매일 매 순간 목주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출산의 공포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행히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며 하루가 어찌 가는지, 정신없이 아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출산 전의 공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 순간 감동 속에 또 다시 하느님께 감사하는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복과 공포를 겪고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며 저에게 강하게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생명의 끈입니다. 제 아기를 볼 때마다 나의 엄마도 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키웠겠구나. 엄마도 내가 이렇게 울 때 엄마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이젠 제 눈에서 엄마의 눈을 그리고 아빠의 눈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사랑으로 날 낳아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아기를 낳고 어른이 되어도, 훗날 제가 할머니가 되어도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제 아기를 보는 지금의 마음이랑 같겠다는 것을... 그래서 하느님도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마음 깊이 느껴져 저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는 아기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고 말입니다. 목주기도 중에 고통의 신비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도 깊이 와 닿지 않던 기도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하게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늘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기를 통해 내리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느님!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그래서 저는 결심해봅니다. 제가 받은 사랑만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께 감사의 사랑을 드려보자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오늘 또 다짐해봅니다. 새해엔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딸이 되어보자고!

복음
묵상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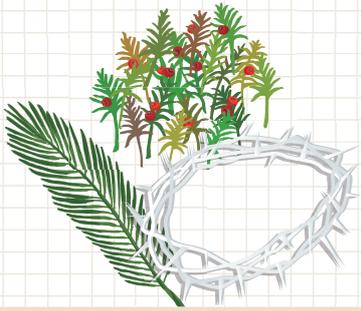
캘리그래피 박철 베네딕도



오늘의 신앙레시피

성호경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십자가 모양의 표시를 합니다. 왼손을 가슴에 붙이고 오른 손가락을 모두 펴서 한데 모아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편 어깨에서 '성', 오른쪽 어깨에서 '령의'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이름으로 아멘'.

이러한 몸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아, 천주교 신자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는(불행히도 모든 신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매일매일의 식탁과 잠자리에 들 때,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나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어김없이 십자 모양을 긋고 작은 소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을 말합니다.

몸에 십자가 모양을 표시하는 것은 성호를 긋는다고 말합니다. 성호는 '십자가의 거룩한 표지'라는 뜻인 '십자성호(十字聖號)'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성호를 긋는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로서 '성호경'이라고 부릅니다.

성호경은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첫째, 십자 모양을 긋는 것은, 내 몸 위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십자가 형상을 죽음의 형틀이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으

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박해시대에도 신자들은 십자가 표시로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를 외우는 것은 하느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그대로 믿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긋는 성호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안는 것입니다. 성호경을 외우며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치는 가장 짧은 기도 성호경은 내 몸 위에 써 내리는 기도입니다. 성호경 기도는 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 신자라고 온 세상에 드러내는 나의 신앙고백입니다.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부소장

Tip 성호경은 십자성호(十字聖號)를 그으면서 외는 가장 짧으나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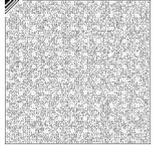
[성경 속 풍속] 유대인들의 겹옷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겹옷까지 내주어라.”(마태 5,40)

Q.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겹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무척 심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겹옷은 필수품이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불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서울대교구 온라인 성경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 성경채널 사이트: onbible.catholic.or.kr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는 2012년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복음화를 위하여 다섯 가지 사목 목표를 매년 하나씩 실천하였습니다. 곧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각 본당과 기관에서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걸어온 이 여정은 허약했던 신앙의 기초를 보다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교구민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맺은 열매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교구의 사목 방향을 새로운 열정과 방법으로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교회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사도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역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의미대로 모든 이에게 ‘기쁜 소





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전했듯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세례를 통하여 짊어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선물이요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라고 외치는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인 가정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인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가정은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며 동시에 “복음이 빛나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가정은 복음 선포를 위한 가장 작은 공동체이며 동시에 우선적으로 복음화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현대 사회의 가정이 직면한 위기들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들 사이에서 언제나 울려 퍼져야”한다고 권고하십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키우며, 전하는 못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가정은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가운데 복음화되고,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복음화하는 교회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이제 저는 가정 공동체가 새로운 열정과 방법으로 복음을 보다 더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입니다. 여기

서 말하는 사랑이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가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키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랑의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교 가정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찬의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가정이 되어주십시오.

부부는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맺은 혼인 계약을 기억하며 “상대방의 성숙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정의 중심에 두십시오. 서로 다른 성(性)을 지닌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는 가정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느님의 선물로 환대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들의 기대나 원의보다 자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십시오. 또한 자녀는 부모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며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 가정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은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첫 스승”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참된 부모는 자신이 먼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체험한 부모는 자신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신앙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지 못하여 잠시 교회를 떠난 가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과 인내의 태도로 그들을 기다려주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교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부모 역시 자신이 선물로 받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선물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손들이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신앙을 전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셋째, 가정은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가정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가정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주십시오.

사제 여러분, 사목활동 안에서 선교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입니다. 사제 자신의 재능, 시간, 그리고 가진 바를 선교를 위하여 더 활용하도록 합시다. 특히 오늘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이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정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아주며,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사목활동을 펼쳐주십시오.

남녀 봉헌 생활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유한 신분 안에서 선교에 충실 합시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삶은 참된 선교의 힘이기에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의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가져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가정생활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기억하며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등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알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갇혀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자비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튼튼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나누며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증언한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가정을 이루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가정도 '작은 가정 교회'가 되도록 빌어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영 수경



레바논 착한 목자 수녀회 난민 쉼터 돕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 '가톨릭평화신문'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지중해 연안과 맞닿은 중동의 작은 나라 레바논. 그러나 이곳은 전 국토가 '난민 캠프'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레바논은 대한민국 면적의 10분의 1 크기에 인구는 약 600만 명. 그러나 난민 수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이릅니다. 인접국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지역이 모두 오랜 내전과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IS)의 위협으로 국가 기능을 상실해버렸고, 이 여파로 삶의 터전을 떠난 많은 난민이 레바논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레바논 전역에는 현재 '불법 난민촌' 1,700여 곳이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내륙으로 30여km 떨어진 세헤일리 지역에도 '난민 정착촌'이 있습니다. 돌 바닥 위에 나무와 천으로 덕지덕지 만든 임시 주거지에는 난민 가족들이 용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사실상 '사람 사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세헤일리 난민 캠프에 '주님의 빛'이 드리워졌으니 1975년 착한 목자 수녀회가 설립한 '착한 목자 쉼터'입니다. 매춘과 차별, 학대에 노출돼있는 레바논과 난민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입니다.

'착한 목자 쉼터'에는 6~18세 난민 소녀 15명과 레바논 소녀 30명 등이 거주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의 불안을 경험한 난민 소녀들,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폭력을 당했던 고아들입니다. 이들 중엔 난민 캠프 무슬림들의 배척을 피해 쉼터를 찾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쉼터 수녀 7명과 봉사자들은 한창 또래와 뛰어놀아야 할 청소년들의 엄마가 돼주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 때 입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학업을 지속하도록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어린 소

녀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쉼터를 담당하는 안토이네트 아사프(착한 목자 수녀회) 수녀는 "레바논은 알코올 중독, 범죄, 매춘과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쉽게 학대의 대상이 되고, 특히 난민 여성들은 전쟁과 차별, 가난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여성들의 유일한 희망 지킴이가 돼주고 있는 '착한 목자 쉼터'의 낡은 시설 보수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한국지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선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소녀들을 제대로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 충원이 시급합니다. 또 쉼터가 지어진 지 40년이 넘다보니 난방 및 전기 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겨울을 대비한 연료비도 빠듯합니다. 현재 40여 명의 쉼터 식구들은 낡은 부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도 절실합니다.

12년간 정든 쉼터를 떠나 대학에 진학하는 나탈리양은 "작별의 순간은 슬프지만, 수녀님들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6살 때 시리아 내전을 피해 엄마와 레바논 캠프에서 지내다 쉼터를 찾아온 마야(15)양은 3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야양은 수녀들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수녀님들을 내 앞길에 보내주셨어요"라고... 전쟁과 폭력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는 보편교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정훈 필립보 넬리 |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자료제공 :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한국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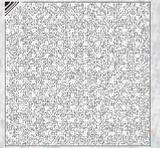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19년 1월5일~2019년 2월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착한 목자 수녀회 레바논 난민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일과 입금액을 알아야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후원**은 은행에서 위의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 727-2034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http://cc.catholic.or.kr>(모바일 가능하며,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727-2034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 727-2510, 2506 바보의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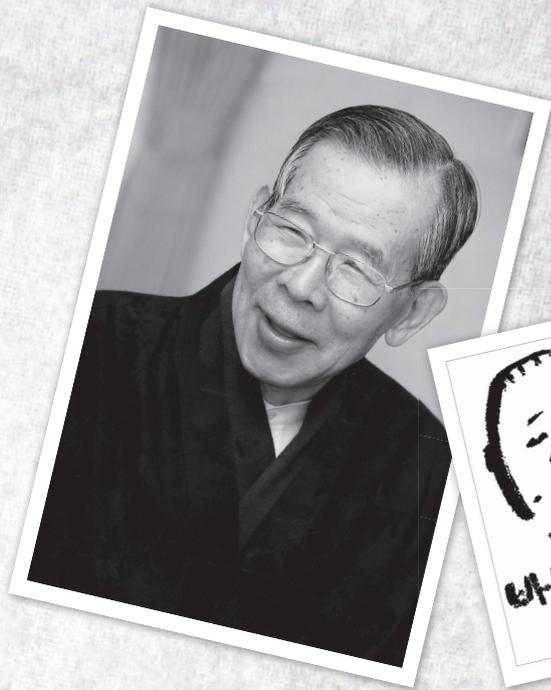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운 바보'

- 김수환 추기경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가끔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그리운 얼굴, 소중한 얼굴들을 만나곤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 문득 ‘그립고도 소중한 바보’가 떠오릅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올해는 추기경께서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12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으신 성모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사제의 길이라 여기셨던 분.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여섯 대통령과 함께하였던 서울대교구장으로서의 재임 기간(1968~1998년) 동안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추기경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뇌의 시간을 사셨던 분. 그 역사의 순간들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아직도 자리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국내에서뿐 아니라 아시아교회와 보편교회 안에서도 그 삶이 기억되는 추기경의 선종 10주년을 맞아 서울대교구는 그분이 사셨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실천을 되새기며 이어가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개인들뿐 아니라 교구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 안에 그분의 마음과 손길 그리고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되새기며 따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더욱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선종 10주년인 2월 16일을 전후하여 한 해 동안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라는 한 개인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되새기며 이어가는 결심과 실천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사제품을 앞두고 이루어진 면담에서 ‘기도하는 사제가 되리’는 추기경의 말씀을 되새기며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성체조배의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또한 “신앙이란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직무와 직책을 통해 타 교구뿐 아니라 세상에도 봉사하고자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바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바보로 살고 가신 그분의 삶을 흉내내 보았으면 합니다. 추기경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노력이 그분을 이 시대에 또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cpbc 라디오 FM105.3MHz | 스마트폰 어플 cpbc 빵



cpbc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진행 김지현 야고보 | 구성 방은영 마리안나 | 연출 정혜인 아녜스
방송시간 (월~금) 오전 8시40분~10시 · (토) 오전 8시~10시

<행복을 여는 아침>의 행복 지디! cpbc 김지현 야고보 아나운서가 신자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노래인 생활성가와 함께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바탕이 된 코너들로 꽉 채워지는 시간! 행복한 하루의 출발, cpbc <행복을 여는 아침>으로 시작해보세요.

황중호 신부의 말씀 사냥!



“ 행복한 한 주를 위해 이 말씀만은 놓칠 수 없다!
복되고 기쁜 말씀의 숲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사냥하는 시간! ”

한 주간 복음의 맥을 짚고 싶다면? <행복을 여는 아침> 매 주 월요일 코너에 귀 기울여주세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복음 말씀도 일상의 언어와 경험으로 쉽게 풀어주는 화요일의 코너지기, 서울대교구 홍보국 차장 황중호 베드로 신부와 함께라면 주님의 말씀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임의준 신부의 고민보다 Go!



“ 중학생 아들이 냉담 중이라
고민이에요.
빨강? 파랑? 어떤 색 옷을 입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균형,
어떻게 잡을까요?
좋은 직장과 여자친구를
내려주세요. ”

삶이란 고민의 연속! 고민은 살아있다는 증거!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임의준 프란치스코 신부가 고민 속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일상생활 속 소소한 고민부터 신앙생활의 깊은 고민까지 함께 나누고 서로를 보듬는 시간.

매주 화요일, #1053 문자메시지(100원의 정보이용료)와 cpbc애플리케이션 방송토크로 여러분의 고민 사연 털어주세요.

도시의 정석



매주 토요일 1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예로니모 교수와 함께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살기에도 좋은 삶의 터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속도와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 동네 자랑부터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한 주체적 해법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 나타난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 함께 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 밖에도 생생한 해외 사목 현장 소식을 전해 듣는 <땅끝까지 외쳐라>

cpbc여행사와 함께하는 <순례, 어디까지 가봤니?>

배우 겸 화가 김현정 소화테레사의 <행복한 성화읽기>

은혜로운 신앙의 현장을 찾아가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교회의 배봉한 세례자 요한 부장의 <살림! 가톨릭> 등

다채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cpbc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1월6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1월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1월13일(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월13일 서상필 요아킴 신부(31세)
- 1963년 1월7일 김영식 베드로 신부(54세)
- 2015년 1월8일 최용록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7세)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교리학교
인터넷 교리·통신 교리 이수자 편입**

대상: 인터넷 교리, 통신 교리를 마치고 수료증을 지참한 예비신자
문의: 3407-3914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교리학교(월요일 휴무)
내용: 명동대성당 예비신자 교리학교에서 면담 후 교리반에 편입. 칠성사와 관련된 3개월 추가교리와 조 나눔을 이수한 후 세례성사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 묘원 설 성묘 안내

1)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안내 / 미사: 1월27일(일) 성묘 승차권을 묘지관리과에서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예약(727-2225)후 송금하셔야 자리배정이 가능합니다. 관리비가 미납되신 분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장기 미납시에는 무연고 처리됩니다. / 식사 및 성묘 - 개별준비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공원묘원 성당(김수환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차량 도착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요망

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승차권 예매: 1월7일(월)~1월24일(목)
선착순 자리배정(1매 1만1천원-조기마감 가능)
계좌번호: 우리은행 454-003267-13-15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727-2225 묘지관리과, 031)334-0807 용인묘원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안내

미사: 1월27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1층 / 식사 및 성묘 - 개별준비
승차권 예매: 명동출발(신청: 727-2225), 도림동출발(신청: 833-9439)
미사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교구정일림

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구역반장을 위한 미사

1월	오전	오후
8일(화)	구로3동(11시)	연희동(14시)
9일(수)	역삼동(10시)	중앙동(14시) 흑석동(14시)
10일(목)	노원(10시) 서초동(11시)	
11일(금)	양천(11시) 창동(11시)	오금동(14시30분)

서울가리타스자원봉사센터 기본교육 신청

하느님 사랑실천인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사전접수 필수)
때, 곳: 1월19일(토) 10시~13시, 가톨릭회관 426-1호
회비: 5천원(증명사진 1매) / 문의(신청): 727-2235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및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주(화) 1월8일 · 2월1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1월19일(토) · 20일(일) · 22일(화) 오전 8시 출발(명동대성당 앞마당 집결)
곳: 명동대성당, 광희문, 가회동성당, 노고산, 왜고개, 삼성산 / 회비: 2만원(중식, 보험료, 교통비 포함)
문의(신청): 02)2269-0413(선착순 마감)
(1월7일(월) 오전 9시부터 문자접수 가능, 이름, 세례명 필수표기 / 문자접수 시, 지역번호(02)까지 포함하여 받는 사람 번호에 기입)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727-2336

윤지원 개인전(이론 전작): 제 1전시실
갤러리1898 신소장품전: 제 2, 3전시실
전시일정: 1월9일(수)~15일(화) 오전까지

제7회 가톨릭성가대 합창 심포지엄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때: 1월26일(토) 13시~18시
곳: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최양업홀(전철 2·5호선충정로역 5번출구, 전철 1·4호선 서울역 1번출구)
내용: ①성구간의 따름노래, ②사순시기 합창곡, ③새 성가 Reading Session
신청: 교회음악대학원 홈페이지(www.casm.site) 참조 또는 간편접수 / 1월19일(토)까지(당일접수 가능)
회비: 3만원 / 문의: 393-2213~5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2019년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

문의(접수): 727-2126, 7
홈페이지(http://seoulccpa.catholic.or.kr) 참조
1)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0주년 기념 공개강좌
주제: 범죄심리학자가 본 인간본성
때: 1월23일(수) 19시~21시(선착순 300명)
곳: 가톨릭회관 7층(회비 없음) / 강사: 이수정 교수
2) 서울가톨릭상담심리학회 교육생 모집

가톨릭상담심리사 1, 2급 모집	대상: 1급 또는 2급 교육수련을 원하는 가톨릭 신자/일정: 과목별로 상이(홈페이지 참조)
가톨릭상담심리사 3급(12기) 모집	대상: 전인적 성장 및 의사소통훈련을 원하는 고졸이상 가톨릭 신자 일정: 1학기(3월5일~6월4일) 2학기(9월3일~12월10일), 소그룹상담실습(개강 후 일시 선택)

신청방법: 홈페이지 가입 후 메뉴-회원전용-교육수련신청
신청기간: 1월6일~2월20일 / 교육비: 2월20일까지 입금마감

2019년 가톨릭 유아생태 기관장 교육

대상: 가톨릭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장 60여 명(회비 없음)
내용: 강연, '생태계의 위기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오기출 푸른아시아 이사), 2019년 유아생태교육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때, 곳: 1월16일(수) 14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및 해밀가족 모임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1월7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921-5094
2) '해밀' 가족모임 안내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으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함께 합니다. / 문의: 921-5093

민족화해위원회

1) '내 마음의 복讎 본당 갖기' 미사봉헌 / 문의: 727-2420
때, 곳: 1월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본당: 춘천교구 평화 본당 · 이천 본당
미사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讎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2) '우니타스 엔젤스 합창단' 창단 멤버모집 / 문의: 753-0815
노래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어린이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6세~13세 어린이(종교무관)
오디션 및 연습: 매주(토) 17시~19시,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3) '우니타스 성가대 단원 모집' / 문의: 010-8841-3499
민족의 화해와 일치, 복讎 땅 57개 본당을 기억하며 드리는 미사에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 60세 미만, 알토 · 베이스(상시모집)
미사: 매주(화) 19시, 명동대성당(연습: 매주 미사전 · 후)

모임

청년 이스라엘 성지순례(2019년)

때: 9월7일~15일 / 대상: 20~30대 남녀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18양천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내적치유 피정

강사: 김성태 신부(도미니코 수도회) / 문의: 010-9074-6527
때, 곳: 1월7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렉시오 디버나 모임

대상: 20세~35세 미혼 여성 / 문의: 010-5174-1135
때, 곳: 매주(수) 19시30분~21시, 성분도 은혜의 뜰

12사초지구 성령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4010-2370

강사: 김 에프렘 수녀 / 미사: 이중남 신부
때, 곳: 1월8일(화) 12시30분, 반포4동성당 대성전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아씨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때, 곳: 3월11일~24일, 이스라엘·이탈리아
문의: 010-6419-2694 권 루치아 수녀

삼성산 피정의 집 무료 대피정

강사: 이금재 신부(전주교구) 외
때, 곳: 1월11일(금) 18시~13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874-6346, 010-3353-4123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식사,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월13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743-7026, 010-2625-8111

소록도성당 피정 / 문의: 010-5388-5706

때: 3월23일~24일, 4월6일~7일, 4월27일~28일, 5월11일~12일, 5월25일~26일, 6월8일~9일 / 출발: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7시10분(죽전, 신갈 7시30분 승차)

어능 청소년성지 겨울 프로그램

지도: 박상호 신부 / 문의(접수): 031)636-4061

청년 찬양 피정	2월23일~24일	고3 피정	1월14일~15일
청소년 찬양 피정	2월19일~20일		

미혼 여성 피정(삼성산 성령 수녀회)

곳: 삼성산 성령 수녀원 / 대상: 미혼 여성(40세 이하)
문의: 010-3551-5877(사전 전화 접수 요망)

개인 피정	수시 접수	성경통독	수시 접수
기도모임	매주(수) 오후 2시 이후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3월16일~17일, 4월13일~14일
3박4일	1월10일~13일(39세 이하 청년), 2월21일~24일
8박9일	2월12일~20일, 3월1일~9일, 1월21일~29일(신학생 피정)

기적의 메달과 함께하는 1월 기도 모임

대상: 관심있는 19세 이상 여성 / 문의: 010-6625-0927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때, 곳: 1월19일(토) 14시~17시, 교구청 별관

성경통독 효소단식 피정(도미니코수도회)

곳: 도미니코 수도원(강북구 수유동) / 지도: 토마스 신부
때: 1월11일~14일, 1월18일~21일, 2월22일~25일
회비: 36만원(효소 포함) / 문의: 010-9363-7784 신정미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때: 1월16일~18일, 1월21일~24일, 1월28일~30일, 2월10일~12일, 2월14일~16일, 2월19일~22일

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해외선교)

대상: 만 23세~만 38세 남녀 / 문의: 929-4841
때, 곳: 1월13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 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www.columban.or.kr

파티마 성모발현 기념 피정 / 문의: 031)952-6324

때: 매일 13일 10시~11시 미사 / 중식 제공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문산읍 마정로100)
메주고리에 성모신심 피정: 13시~18시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 문의: 010-5388-5706

때: 3월23일~24일, 3월30일~31일, 4월6일~7일, 4월27일~28일, 5월11일~12일, 5월18일~19일 / 출발: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7시10분(죽전, 신갈 7시30분 승차)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미사: 매주(금) 19시30분
지도: 이성진 신부 / 문의: 010-7223-3140 이은희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다물피정의 집 상반기 피정 / 문의: 010-8906-2141

2월	성경 통독 피정: 2월18일~27일
3월	성경 통독 피정: 3월18일~27일
4월	성경 통독 피정: 4월1일~10일
3월~4월	신구약 30일 성경통독 피정: 3월12일~4월10일
5월	하느님 섭리 안에 머물: 5월10일~12일

우이동 예수고난회 명성의 집 2월 피정 / 문의: 990-1004

침묵 피정	1월14일(월)~17일(목), 3월15일(금)~17일(일)
성경통독 피정 -모세오경, 역사서	1월22일(화)~24일(목), 2월19일(화)~21일(목)
성가정 피정	1월25일(금)~27일(일) 설명절 피정 2월4일(월)~6일(수)
월피정	2월9일(토), 3월23일(토) 10시30분~16시20분

예수회 후원회 금요 침묵 피정 · 월례특강 / 문의: 3276-7777

금요 침묵 피정	주제: 나를 찾아서 1, 2 / 강사: 제병영 신부 1월11일(금) 10시~15시10분, 예수회센터 회비 없음, 미사 봉헌
월례 특강	주제: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 강사: 권오창 신부 1월16일(수) 13시30분~16시30분, 예수회센터(마포구 서강대길 19) / 회비 없음, 미사 봉헌

13관악지구 성령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5049-1068

때, 곳: 1월8일(화) 13시~17시, 중앙동성당 / 강사: 이철 신부

사계절의 기도 나만의 언어로 기도하기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피정
때, 곳: 1월21일(월) 10시~17시, 분도빌딩 5층 봉헌회관
회비: 3만원(중식 포함) / 인원: 선착순 50명
문의(접수): 2266-7152 분도출판사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 성경), 강의, 묵상, 미사(순교자의 밤) / 지도: 수원교회사연구소장 신부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회비 없음(선착순 100명)
때, 곳: 매일 셋째주(토) 1월19일 14시~20시, 구산성지
문의(접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3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주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
강사: 정건석 신부, 유용덕 신부, 두현자 회장
때, 곳: 3월2일(토)~3일(일), 아론의 집(의왕시)
주최: 미국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하찬사
문의: 010-8517-2306, 010-6366-9356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 가능함
때: 1월19일~21일, 1월26일~29일(한라산 눈꽃 산행), 2월16일~18일(눈꽃 산행), 2월22일~24일(눈꽃 산행), 2월25일~27일, 3월1일~3일 /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성물조각 · 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010-5234-5044

대치 오르간 아카데미 / 문의: 010-9468-7660

곳: 대치2동성당(주최) /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

청년 복음화학교 11기 개강

때, 곳: 1월15일(화) 19시, 가톨릭회관 527호
문의: 753-8765 복음화학교 교육국

우쿨렐레 · 통기타 / 문의: 010-6415-1980

각 본당 방문레슨 / 추가·성가 녹음 가능
곳: 삼성산성지 피정의 집 가톨릭문화선교단(주최)

CaFF영화제작워크숍 9기 모집(가톨릭영화인협회)

때: 3월5일부터 매주(화) 오후 6시30분(총14회)
회비: 30만원(실습비 포함) / 문의: 0507-1424-0712

신 · 구약 성경통독(성산2동성당)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화) 10시·19시 미사 후 90분 강의, 성산2동성당
회비: 5만원(6개월) / 문의: 3789-5425 성경통독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대상: 초5~중3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문의: 2258-8983 (월~금)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oakinternational.co.kr

스파니쉬 클래식 기타 토요 특강

대상: 기타코드 정도 아는 분 / 회비: 10만원(2회분)
때: 1월19일(토)·26일(토) 10시~15시 / 인원: 15명
곳: 경의중앙선 응봉역 5분 거리(공영주차장 이용)
문의: 010-3347-6458 이명임

바로로탈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 1월31일까지 접수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문의: 944-0819~24, 0840~2(이러닝)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 문의: 828-3600

대상: 만 15세~30세 남자 / 때: 3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 무료, 수강 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취업률 96.4%)

2019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745-8339
내용: 성경, 교의, 전례 등 26과목
원서접수: 2월13일(수)까지 우편신청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 수강생 모집

개강: 1월3일(목)·1월8일(화) / 회비: 7만원(3개월)
곳: 가톨릭회관 202호 / 문의: 727-2520, 010-3687-3072
모집인원: 기초 15명, 초급 10명, 중급·고급 5~6명

기초 (화) 10시30분~13시	초급 (화) 14시~16시30분
중급 (목) 10시30분~13시	고급 (목) 14시~16시30분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위 과정(4년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졸업 후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 수여
문의: 705-8678(<https://www.soganggame.ac.kr>)

모집 분야	게임그래픽·애니메이션	본교 홈페이지 입학사이트 참조
	게임기획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의회관) 수강생 모집

문의: 2258-7738, 9(www.catholic.ac.kr/~cukcedu)

아로마 과정	ITEC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 반려동물아로마지도사	담당교수: 최승완
플라워 과정	FDF 독일플로리스트 국내 과정 보존화·가공화 전문가 과정	담당교수: 박지순
미술심리 지도사1,2급	3월11일 개강, 매주(월) 10시~13시 (단계별 11주 총 3단계) / 010-4220-9099	지도교수: 김은영

가톨릭여성연합회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원어민 영어회화 초급반 모집 / 문의: 778-7543
때, 곳: 매주(월) 10시~12시(주1회, 2시간), 가톨릭회관 513호 / 회비: 3개월 12만원(연회비 별도)

영어 시 강좌(성골름반외방선교회)

강사: 케빈 오록 신부 / 문의(접수): 953-0613
때, 곳: 1월15일~4월30일 매주(화) 14시~15시30분, 전철4호 선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도보 1분 / 회비: 22만원(15회)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학교 8기생 모집

대상: 국내이주사목, 해외선교 및 해외교포사목을 지향하고 있는 사제 및 수도자 / 회비: 80만원
때: 3월7일~9월6일 매주(목)
곳: 한국외방선교회 본부 / 문의: 3673-2528

교육부 졸업장 성인 초등학생·중학생 모집

40년 동안 국일학교를 운영하여 2011년부터 검정고시 없이 성인이 학력인정 반도록 법제정에 앞장섰습니다. 성인의 못 배운 '한'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 부모와 이웃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인생, 스스로 평생학습에 동참함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문의: 727-2471
때: 주3회, 3년(중퇴 정도에 따라 1년에도 졸업 가능)
곳: 가톨릭회관 522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주최)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 문의: 747-8501

성경과 가톨릭신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공부
1월22일(화)까지 접수 / 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 2년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 2년	수료 및 4년으로 연장 가능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 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인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강사: 강계나(010-7785-6409)
국악기·대금·소금·단소·생활음악악기-팬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틴휘슬	(수)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30분~20시30분	강사: 김경숙(010-7930-2074)
재즈피아노	(금) 10시~12시, 19시~21시	강사: 한상희(010-7244-1312)

예수회센터 영성 강좌(3월 개강) / 문의: 3276-7733

'몸 신학' 교리해설	매주(월) 10시~12시	임숙희 박사
그리스도인의 대화법 -비폭력대화	매주(수) 10시~12시	이운정 강사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저녁반 매주(화) 19시30분~21시20분 오후반 매주(수) 14시~16시	권오연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	매주(목) 14시~16시	전주희 수사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30주 과정, 10주 단위로 접수)	매주(월) 10시~12시	김정옥 신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교육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때: 2월18일(월)~19일(화) 9시~17시
곳: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 의생명연구원 2층 대강당 / 2월15일까지 접수
회비: 5만원(마감 후 취소 불가), 당일 접수 5만5천원
계좌: 우리은행 1005-101-712022 서울성모병원
문의: 2258-1901, 1904(<http://hospice.cmcseoul.or.kr>)

돈보스코영상대안학교 신입생 모집(기숙형)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단편영상제작, 팟캐스트, 인방송, 인성교육, 기초교과교육, 진로 및 진학지도 / 문의: 833-0930(dybs@sdb.kr)
수시 입학, 기숙사 구비(통학 및 기숙 가능)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양천구 신월3동)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 회비: 7만원(6주)
대상: 기도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신자
때: 1월22일(첫모임)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 1월26일(첫모임)부터 매주(토) 10시30분
곳: 사랑의 힘 빌딩 5층(전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5분) 선착순 접수 / 문의(접수): 333-9898 한국CLC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2차 신입생 모집

문화영성학 석사학위과정(5학기)
학위와 별도로 '가톨릭영성전문가과정 이수증' 수여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초구 반포대로 222)
모집기간: 1월7일(월)~25일(금) / 면접일: 1월30일(수)
교과영역: 성경과 영성, 영성사와 신학, 전례와 예술, 문화의 이해, 상담과 치유 등
문의: 2258-7814(<http://gcs.catholic.ac.kr>)

모집

성가복지병원 진료봉사자 모집

신경정신의학과, 피부과, 안과, 내과에 봉사해 주실 의사선생님을 기다립니다
문의: 010-4462-1526 의무원장, 940-1521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소프라노, 테너(49세 이하), 알토, 베이스(54세 이하)
오디션: 2월11일 19시 / 문의: 010-3011-2723 지휘자
곳: 고속터미널성당 / 연습: 매주(월) 19시30분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성음악에 관심 있는 가톨릭 신자 및 예비자(20~30대 미혼 남녀, 전공 및 소속 분당 제한 없음)
오디션: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때, 곳: 1월20일(일) 18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문의: 010-9123-6568 단장(사전 연락 요망)

미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회의 / 문의: 773-3030
 때, 곳: 1월10일 13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군중후원회 월례 미사 / 문의: 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북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월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인사

성안드레아병원 / 문의: 031)639-3700
 정신장애 환우를 위한 최적의 치료환경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서울대병원 모자병원
 운영: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www.standrew.co.kr
 곳: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84

2019년 가족상담사 1~3급(전인상담교육연구소)
 곳: 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마을버스 06
 문의: 010-9711-1530, 010-3703-5904 김재근 수녀

교육	2019년 가족상담사 1~3급: 월반 10시~16시·수반 18시~21시·토반 10시~13시	회비: 1학기 78만원, 58만원
	빠른치유와 생애교육: 화반 10시~12시·화반 14시~16시·목토반 14시~16시(5주)	회비: 28만원
	MBTI와 영성생활: 금반 10시~12시(5주) 경혜자 수녀, 김재근 수녀(010-9711-1530)	회비: 30만원
상담(유 무료)	아동~가족, 성직·수도자, 성소식별종합심리검사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726-0700

감수성훈련-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훈련과정	1월18일(금) 10시~20일(일) 17시 (숙박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2019년 여대생 기숙사생 모집	대상: 서울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문의: 726-0700, 0701 전진상교육관 홈페이지(www.jiscen.or.kr) 게시판 참조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 공황, 대인기피, 강박 등) 종합심리검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면담 고해성사

성사시간: 개인당 최대 30분 / 문의: 953-0613
 때, 곳: 매주(수) 13시~20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도보 1분) / 예약 필수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0지구(송파동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727-2137~9 /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유관단체 알림

'까리따스' 알코올 의존자 사회복귀 이용시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알코올의존자 이용시설로 음주문제 회복을 위한 주·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야간) 신설: 매주(수) 19시~21시 / 521-2364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가톨릭 교육자 피정

강사: 황미란 수녀(서울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회장)
 지도: 백종연 신부, 이재을 신부 / 회비: 2만원(중식 제공)
 때, 곳: 1월14일(월) 9시30분~17시(미사 있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대상: 가톨릭 교사, 교육자, 학부모
 문의: 010-5509-3217, 010-4766-6719 베리따스 교사회

직원모집

소사 분도유치원 교사 모집 / 문의: 032)347-6155

대상: 유치원 정교사 2급(1~2년 경력교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cosabundo@hanmail.net) 접수

가톨릭신문사 경력직원 모집

분야: 취재 및 편집기자, 편집디자인, 전산
 1월13일(일)까지 접수 / 문의: 010-2616-4285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절두산순교성지 사무원 모집

인원: 1명(계약직) / 문의: 2126-2251
 대상: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으로 주말 근무가능자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1월16일까지 이메일(jeoldusan@hanmail.net)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대상: 세탁 근무자(청소, 미화, 세탁) / 인원: 계약직 0명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교구 양식) 각 1부씩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월20일(일) 도착분에 한함 / 전화문의의 사절, 이메일문의의

반포1동성당 관리인(계약직) 모집 / 문의: 517-6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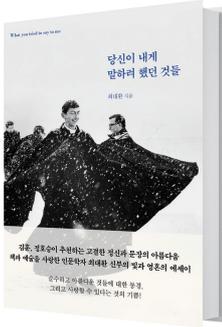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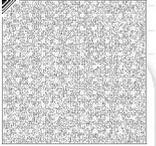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교우로 시설물, 주차, 경비, 미화 등 제반 관리 유경험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1월18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우 06543, 서울시 서초구 주흥1길 6(서초구 반포1동 742-22) 접수

서울주보
 게재신청
 안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단체사무부**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심수녀회	1월19일(토) 14시~17시	소피이 기도의 집(용산구)	010-4786-5501
예수의 성모 여자 수도회	둘째주(일) 1월13일 14시	마리아 전례센터(가톨릭회관 207호)	010-2910-4825 윤 스텔라 수녀



신간

당신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

최태환 지음
파람북 | 316쪽 | 1만4천5백원
구입문의: 070-4353-0561

저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고, 극심한 압력과 스트레스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양극단에 선 싸움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순수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잃고 사는지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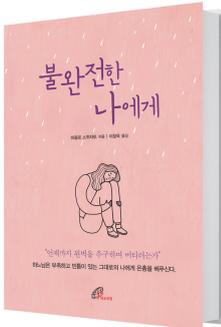


신간

탐욕

안셀름 그린 지음
바오로딸 | 256쪽 | 1만5천원
구입문의: 944-0944

저자는 '탐욕'과 관련된 성경 속 이야기들과 현재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연결하여 쉬운 문체로 설득력 있게 주제를 풀어낸다. 탐욕의 파괴력을 어떻게 삶의 활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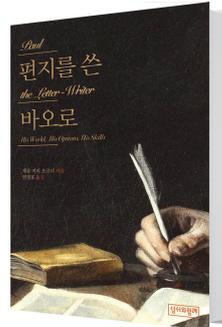


신간

불완전한 나에게

파올로 스퀴차토 지음 | 바오로딸
136쪽 | 1만원
구입문의: 944-0944

세상의 요구에 맞춰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불완전한 내 모습에 하느님 은총이 찾아올 빈틈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영성 에세이다.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한계, 모자람, 약함, 상처 등 부족한 모습을 대면하고 인정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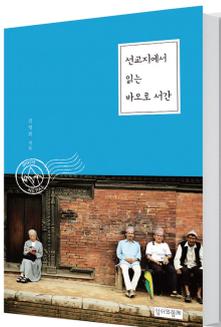


신간

편지를 쓴 바오로

제롬 머피 오코너 지음 | 엄철호 옮김
성서와함께 | 320쪽 | 2만1천원
구입문의: 822-0126

이 책은 고전 그리스와 라틴 저자들의 글을 인용하여 질문들에 답한다. 당대의 편지들이 어떻게 쓰여 전달됐는지,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오로의 편지와 비교하며 검토한다. 바오로가 당대의 서간 양식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변형했는지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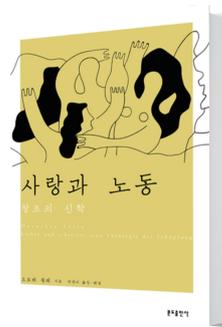


신간

선교지에서 읽는 바오로 서간

김영희 지음
성서와함께 | 200쪽 | 1만5천원
구입문의: 822-0126

수녀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23편의 편지글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네팔의 다양한 문화와 삶을 소개하며 한편으로는 바오로 사도가 서간을 통해 가르쳐 주는 신앙인의 태도, 선교사로서의 자세 등을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선교지에서의 다채로운 삶과 바오로 서간을 동시에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신간

사랑과 노동

도로테 질레 지음
분도출판사 | 312쪽 | 2만원
구입문의: 2266-3605

생산하지도 않고 소비하지도 않는 시대에 직면해서, 저자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자기표현으로서의 노동, 노동과 사회적 관계, 자연과 화해하는 노동에 중점을 두고 노동의 비전을 제시한다.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에 동참할 것을 격려한다.

2019년도 본당 사목 지침

선교의 시작은 공동체로부터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찬미 예수님!

우리 교구는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다섯 가지 사목목표를 매년 하나씩 실천하기 위하여 1.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3.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4.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구에서는 올해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를 사목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당 공동체도 올해는 교회의 으뜸 사명인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선교에 함께 하는 마음을 지녀 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제껏 우리가 알아 왔던 예수님의 삶과 생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필요한 구성원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남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사랑을 담을 수 있으며,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바라봅니다. 또한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키우고 배우고 전하는 가정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둘째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신자들 개개인 구성원들에 의해 하나의 본당 공동체를 이룹니다.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작년과 같이 기쁘게 봉사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신자들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과 행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함으로써 그리고 본당의 주보를 유심히 보고 교회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본당 공동체의 내일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또한 주일미사는 물론 평일미사에도 자주 참석함으로써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기를, 본당 공동체는 명동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성과 배려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봅니다.

셋째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본당 공동체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복음 선포를 통한 선교의 장이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취하고, 다양한 만남 가운데 생명의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가 선교의 출발점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칭찬과 감사의 말이 자주 나오고, 자주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올해는 주변의 사회적 상황들이 조심스럽게 평화의 단어들로 다가옵니다. 올 한 해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임신부 조 학 문 (바오로)



774-1784(☎)
753-1784(FAX)

☎ 본당 연령회 ☎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부주임 지상술(힐라리오) 신부
선교·교육 김상우(바 오 로) 신부
청년·문화예술 이세호(시 문) 신부
전례·성음악 장원혁(세례자요한) 신부
청소년 박성진(스테파노) 신부

미 사 성 가	입당 : 487	봉헌 : 217, 221, 513	성체 : 166, 154, 497	파견 : 100
---------	----------	--------------------	--------------------	----------

- 1월에는 「병자 영성체」가 없습니다.
- 주일학교 가족미사 : 1월 6일(주일) 오전 11시

● 1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월 입교 시 세례성사는 7월에 거행되며, 예비신자환영식은 1월 6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신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금요반	오후7:30	교구청신관 402호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신관 401호	박 카타리나 수녀

● 부제 서품 공시

본당 출신 김준휘(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생이 오는 2월 1일(금) 부제품을 받습니다. 교회법 제1043조에 의거하여 부제로서 성직직분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 계시면 1월 9일(수)까지 본당 주임 신부님께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부제되실 분을 위한 축하의 뜻을 보내 주실 분들은 성당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제 단체 정기 감사

- 감사대상 : 본당 및 모든 단체 (※자체 운영 단체도 포함)
- 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1년간)
- 감사일시 : 2019년 1월 12일(토)~13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사목협의회의실
- 구비서류 : 금전출납부, 증빙서류철, 수입지출 현황, 통장 등

● 봉사뱅크로 초대합니다 !

봉사뱅크는 명동대성당을 찾는 모든 이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일을 찾아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실천하는 신앙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 뜻있는 누구나 (예비신자도 환영합니다.)
·참여방법 : ☞ 매월 첫째 주일 성당마당 봉사뱅크 부스
☞ 카카오톡 친구 검색 : '봉사뱅크'

●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2019년 1월 ~ 6월)

강좌명	일 시	개강일	등록비
수화 초급 (6개월 과정)	매주 목 19시~21시	1월3일	125,000원 교재비 (5천원 포함)
	매주 금 19시~21시	1월4일	

- 강의실 ☞ 명동대성당 범우관 408호
- 오르간과 전례꽃꽂이 과목은 수강인원이 마감되었습니다.
-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내선 2215번)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대 상 : 첫영성체한(예정인) 초등 3~5학년 남학생
- 오디션 : 1월 13일(주일) 오후 3시
- 준 비 : 자유곡 1곡 (※악보 지참)
- 문 의 : 자모회장 ☎ 010-6397-8685

● 2019년도 본당 재정 및 교무금 책정

매년 본당의 재정은 헌금, 교무금, 헌배 봉헌금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헌배 봉헌금이 명동 (옛 계성여고) 발전기금으로 교구에 전액 봉헌되며, 신자분들께서 봉헌해주시는 헌금과 교무금으로 본당을 운영합니다. 교무금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본당에 교적을 둔 세대수는 총 19,280세대이며, 교무금 책정 세대수는 3,179세대입니다. 5,000세대 책정을 희망해도 될까요? 교무금 책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당 사무실에서는 2019년도 교무금을 책정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201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기를 맞아 제작한 탁상용 소형 달력을 작은 선물로 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24-12/30).....67,944,400
- 구유예물 (12/24-12/30).....11,107,000
- 주님 성탄 대축일 헌금.....74,312,550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헌금...37,678,240
- 감사헌금 (12/24-12/30).....1,191,000

김 마리안 / 김 소피아 / 노 파트리치오
유 엘리사벳 / 유 우발도 / 이 가브리엘라
이 대건안드레아 / 임 사무엘 / 장 마리아
정 요셉 / 채 미카엘라 / 최 이냐시오
홍 마리아 / 황 아네스

< 진 레 인 니 >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00, 9:00(Eng.), 10:00, 11:00, 12:00(교중) 오후 4:00, 5:00, 6:00, 7:00(청년), 9:00	교회성사 (Confession)		
		소성당	오전 9:00(중·고등부), 11:00(초등부·솔방아)		주 일	오전 10:00 - 오후 8:00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00, 7:00(늘푸른 청년)	평 일	월	오후 1:00-5:00 (성직자·수도자만)
				화-토	오전 11:00 - 오후 8:00	
	평일미사	대성당	오전 6:30, 오후 6:00, 7:00 (월요일은 오후 7:00 미사 없음.)	English	Before 9:00 A.M. Mass on Sunday	
	성지미사	지하성당	오전 10:00 (월-토)	유아 세례 (Infant Baptism)		
직장인미사	소성당	매주 금요일 낮 12:15 (공휴일 제외)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